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상품 이용 및 금융피해의 관계

신 우 진*

【요약문】 본 연구는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이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분석하고,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지식 과신은 금융상품 이용 여부와 이용 개수, 금융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유형 수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련을 보였다. 객관적 금융지식을 통제 한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대체로 유지되어, 실제 지식과 구별되는 자기평가의 과신이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지식 과신이 청소년의 금융시장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피해 취약성도 동시에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금융교육은 수업 외 교육에서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상품 이용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금융피해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모 금융교육은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기초생활형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의 양(+)의 관계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투자노출형 금융교육은 금융상품 이용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의 양(+)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금융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금융지식 과신을 완화하고 위험 인식,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금융지식 과신, 청소년, 금융상품, 금융피해, 금융교육

*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shinwj@pusan.ac.kr).

I. 서론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달과 금융상품의 다양화,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산은 청소년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입출금 계좌나 체크 카드 등의 일상적 자금관리와 결제 편의를 위한 상품은 사실상 보편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식, 가상자산, 저작권 투자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성 금융상품으로까지 관심을 보이며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김지경 외, 2023). 이는 청소년의 금융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금융 행위의 성격이 단순한 소비·저축을 넘어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 행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금융시장 참여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축과 자산관리 습관 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조기 접근은 금융 경험을 넓히는 동시에 투기적 성향을 자극하고 금융피해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은 중고 거래, 온라인 게임, SNS, 가상자산 투자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기와 불법 금융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THE CHAET)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 중 5명 중 1명이 청소년이며,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아시아경제, 2025), 사이버도박 단속 피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청소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경찰청, 2024).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접근성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금융시장 참여 확대에 대응한 금융교육 등의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에 노출된 과도한 광고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지식 습득으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과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금융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금융지식 과신(overconfidence)은 위험한 투자와 피해 가능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 금융 행위와 금융 피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OECD, 2020). 금융이해력은 일반적으로 저축·투자 의사결정, 부채 관리, 자산 형성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sardi and Mitchell, 2014). 이와 더불어 실제 금융지식 뿐 아니라 인지된 금융지식 역시 금융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Allgood and Walstad, 2016). 이는 금융지식이 높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금융지식이 과신으로 연결될 경우, 그 긍정적 효과가 약화 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금융지식 과신이 위험자산 투자, 과도한 거래, 부채 문제, 금융사기 취약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교육은 금융지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시장 참여를 지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자신감과 잘못된 자기평가를 통제하여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즉, 금융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능력과 자신감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적 금융 행위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교육이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시장 참여 및 금융피해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 행위 및 피해에 관한 연구도 주요 금융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성인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이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이 이러한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청소년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자기 과신(overconfidence)은 자신의 지식, 수행력, 판단의 정확성 또는 통제 가능성 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Moore and Healy, 2008). 즉, 과신은 단순히 자신감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현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역량 또는 판단에 대해 과도한 신념을 갖는 상태라는 점에서 긍정적 태도나 자신감과 구별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과신을 자기 능력이나 성과 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과대평가(overestimation),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우수하다고 믿는 과대배치(overplacement), 그리고 자신의 판단 및 예측 정확성을 과도하게 확신하는 과대정밀(overprecision)로 구분하기도 한다(Moore and Healy, 2008). 이러한 과신은 여러 영역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인지적 편향 중 하나로, 비합리적 행위와 여러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의사의 과신이 진단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기업가의 과신은 창업 실패나 낮은 생존율과도 연결되며, 학생의 학업 과신은

학업성취를 낮추기도 하며, 운전 과신이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Berner and Graber, 2008; Kraft et al., 2022; Sheldrake et al., 2022; Wohleber and Matthews, 2016).

금융 영역에서 과신은 자신의 금융 지식, 정보 해석 능력, 투자 판단의 정확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Barber and Odean, 2001). 즉, 과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금융상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거나, 자신의 투자에 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시장의 위험이나 손실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 적극적인 금융거래와 위험한 금융 행동을 야기하고, 금융 피해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과신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거래와 더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Barber and Odean, 2001), 금융 투자 확률, 투자 사기 경험, 과도한 부채 가능성이 높고(Aristei and Gallo, 2021), 암호 자산의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hatwani and Parija, 2023; Kim et al., 2023; Smith, 2025). 또한, 과신 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금융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덜 받는 경향이 있고(Porto and Xiao, 2016), 사기에 속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기 피해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Xiao et al., 2022). 강한 과신은 과잉투자를 초래하는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은 저투자를 유발하기도 한다(Aristei and Gallo, 2021; Pikulina et al., 2017). 즉, 과신은 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한 금융 행위나 사기성 거래에 대한 통제력을 낮춤으로써 금융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과신은 연령 및 경험과 무관하게 관찰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실제 금융지식은 감소하지만,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과도하게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Finke et al., 2017; Samanez-Larkin et al., 2020). 자산 가격 거품기에는 투자자의 과신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젊은 층과 높은 수익을 경험한 투자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Smith, 2025). 금융 전문가들도 과신 성향이 있고, 위험 감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ihaune et al., 2014). 성인보다 금융 이용 경험이 적은 청소년의 경우, 금융지식 과신은 자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참여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차입이나 비합리적 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Zhu, 2021). 이는 금융지식이나 투자 경험이 축적되더라도 과신이 완화되지 않을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연구에서도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 행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과신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 자산 투자 가능성(김민정 외, 2019)과 위험자산 투자 비중(백은영·주소현, 2011)이 높고, 주식, 채권, 펀드 등 직접투자 상품을 보유할 확률이 높고(김아름·양혜경, 2019), 증권 투자 경험, 재무적 위험 및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이윤호, 2024),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김아름·양혜경, 2020),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금융지식 과신이 금융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방향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한진수, 2023).

선행 연구는 금융지식 과신이 위험한 금융 행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금융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객관적 금융지식과 인지적 금융지식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금융교육과 금융지식 과신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교육이 실제로 과신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지에 대해서도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금융교육이 과신을 유의하게 줄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자신감과 과신을 높일 수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Zhu, 2021). 반면, 금융교육의 효과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금융 이해력이 금융지식 과신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Mandiri and Sriwidharmanely, 2025). 또한, 부모의 용돈 관리 교육은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감소시키지만, 투자 관련 교육은 금융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수민, 2025). 이는 금융교육의 유무나 빈도보다도 내용과 방식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금융지식 과신은 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투자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거래와 위험 감수, 그리고 금융피해 등 부정적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행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금융교육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많지 않다.

청소년의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을 금융지식 과신과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은 금융지식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위험을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의 판단 능력을 실제로 다 높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금융시장 참여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금융지식 과신이 청소년의 위험한 금융행동 및 금융 자율성과 양(+)의 관계를 보여, 과신이 실제 금융행동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Zhu, 2021). 다만 청소년의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은 독립적인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인의 투자 의사 결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은 투자

자금과 금융상품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가정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은 성인과 같은 독립적인 자산 배분이나 투자 의사 결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기 주도적 금융시장 참여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역시 성인기의 투자 행동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청소년기의 금융 지식에 대한 자기평가와 금융시장 참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지식 과신이 금융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피해 가능성을 높이는지 분석하고,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이 이러한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금융교육 유무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금융지식 과신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를 기초적 수준에서 점검하고, 청소년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과신과 금융상품 이용 및 금융피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과 금융 생활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고, 총 5,888명의 중·고등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다.¹⁾ 분석에는 이용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4,04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금융상품 이용은 청소년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금융상품 중에

1) 이 조사는 지역, 학교급 및 학년 등을 고려한 확률 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절차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김지경 외, 2023).

서 부모가 가입해 준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이 직접 가입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금융상품 전체가 아니라 예금 계좌와 같이 보편적인 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저작권 투자(뮤직카우 음원 등) 등의 투자성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이용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이용 유무 변수는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1, 전부 없는 경우 0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융상품 보유가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시장 참여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개수를 연속변수로 구성하여, 추가적인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금융피해 경험 유무는 상품권 및 아이템 낱, 개인신용정보 매매, 폰테크, 소액 대출 등의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1, 전혀 없는 경우는 0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추가로 금융피해 경험 개수를 합산한 연속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을, 유무와 개수 변수로 분리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결과의 일관성과 강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금융지식 과신이 금융시장 참여와 금융피해의 문턱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와 피해의 정도와도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금융지식 과신은 주관적 금융지식의 표준화 점수에서 객관적 금융지식의 표준화 점수를 차감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과신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과대평가, 과대배치, 과대정밀의 여러 유형에 따라 과잉 거래 및 위험 감수 증가 등의 금융 행위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석하기도 한다(Glaser and Weber, 2007; Merkle, 2017). 그러나 많은 연구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과대평가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도 과대평가의 지표로 주로 사용하는 주관적 금융지식과 객관적 금융지식의 차이를 금융지식 과신 지표로 활용하였다. 금융지식 과신 변수의 값이 클수록 실제 금융지식 수준에 비해 자신이 금융을 더 잘 안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금융지식은 ‘자신의 금융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표준화(Z-score)한 값으로, 객관적 금융지식은 인플레이션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된 금융 관련 질문의 정답의 총점을 표준화한 값으로 구성하였다.²⁾

2) 객관적 금융지식 7개 문항은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이자 개념, 단리 계산, 복리 개념,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인플레이션의 의미, 분산투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INFE의 금융이해

<표 1> 이용 변수 정의

변수		정의	변수 유형
금융 상품	이용 유무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주식, 가상화폐, 저작권 투자 등) 이용 경험 (있음=1, 없음=0)	더미
	이용 개수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보유 개수 (=0~4개)	연속
금융 피해	경험 유무	금융피해 경험 (있음=1, 없음=0)	더미
	경험 개수	금융피해 경험 개수 (=0~5개)	연속
금융지식 과신		= 주관적 금융지식 - 객관적 금융지식	연속(표준화)
주관적 금융지식		매우 낮은 수준=1, 다소 낮은 수준=2, 평균 수준=3, 다소 높은 수준=4, 매우 높은 수준=5	연속(표준화)
객관적 금융지식		7문항 정답 점수 총합 (=0~7점)	연속(표준화)
학교 금융 교육	경험 유무	학교 금융교육 경험 유무 (있음=1, 없음=0)	더미
	정규수업 경험 유무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또는 사회·실과(가정) 등 관련 교육에서의 활동 수업 경험 유무 (있음=1, 없음=0)	더미
	수업 외 경험 유무	외부 강사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시청, 기타 교육 경험 유무 (있음=1, 없음=0)	더미
부모 금융 교육	부모 금융교육	4점 척도 7문항 합산 총점 (=7~28점)	연속(표준화)
	기초생활형	용돈 사용 및 관리 방법과 저축 방법,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한 설명과 조언: 4점 척도 3문항 평균	연속(표준화)
	투자노출형	주식 투자 및 증권 계좌 개설에 관한 설명과 조언 : 4점 척도 2문항 평균	연속(표준화)
	정보대화형	금융교육 참가 권유 및 경제 뉴스 등 설명 및 조언 : 4점 척도 2문항 평균	연속(표준화)
성별		남=1, 여=0 (기준=여)	더미
학교급(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6개 범주로 구분 (기준=중1)	더미
지역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도서 3개 범주로 구분 (기준=특별/광역시)	더미
부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3개 범주로 구분 (기준=고졸)	더미
모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3개 범주로 구분 (기준=고졸)	더미
주관적 학업성취		매우 못하는 수준=1, 못하는 수준=2, 중간=3, 잘하는 수준=4, 매우 잘하는 수준=5	연속(표준화)
용돈 유무		용돈 있음=1, 용돈 없음=0	더미
용돈 외 수입 유무		있음=1, 없음=0	더미

주: 김지경 외(2023)을 참고하여 작성함

력조사의 측정 문항 구성을 준용하고 있으며,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문항을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문항이다(김지경 외, 2023).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금융지식과 객관적 금융지식의 측정척도가 상이하므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표준화한 후, 그 차이를 금융지식 과신으로 구성하였다.³⁾ 이러한 방식은 금융지식 과신을 주관적 금융지식과 객관적 금융지식의 불일치로 파악한 선행연구(이주호, 2025; 한진수, 2023; Porto and Xiao, 2016)의 측정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지표는 자신의 실제 금융지식에 비해 스스로의 지식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과대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본 연구의 주관적 금융지식은 자신의 금융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과대배치의 요소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금융지식은 또래와 비교한 실제 상대적 순위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며, 두 지표를 표준화하여 사용하더라도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상대적 능력에 대한 인식과 실제 상대적 위치 간의 차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금융지식 과신은 과대평가의 성격을 중심으로 하면서 과대배치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지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의미의 과대배치와는 구별된다. 또한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의미하는 과대정밀은 본 연구의 측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 금융교육 변수는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을 더미로 구성한 경험 유무 변수와 세부 교육 방식별로 구분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세부 교육 방식별 변수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또는 ‘사회·실과 등 관련 교과목에서의 활동 수업’을 받은 경험 유무를 정규수업 경험 유무 변수로, ‘외부강사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시청’, 기타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를 정규수업 외 경험 유무 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 금융교육 변수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은 금융 관련 교육과 조언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총 7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한 뒤 합산한 총점(7~28점)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부모 금융교육의 내용을 세분화하기 위해, 용돈 사용 및 관리 방법과 저축 및 은행 계좌 개설 관련 3개 문항의 평균을 기초생활형 금융교육, 주식 투자 설명과 증권 계좌 개설 및 투자 대화 관련 2개 문항의 평균을 투자 노출형 금융교육, 금융교육 참여와 경제 뉴

3) 금융지식 과신을 구성하기에 앞서 주관적·객관적 금융지식 원점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주관적 금융지식은 평균 3.10, 표준편차 0.80, 최솟값 1, 최댓값 5, 왜도 0.23으로 비교적 대칭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객관적 금융지식은 평균 5.19, 표준편차 1.41, 최솟값 0, 최댓값 7, 왜도 -0.97로 높은 점수에 다소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의 표준화는 정규성 확보를 위한 변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두 지표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스 및 금융 이슈 설명 관련 2개 문항의 평균을 정보 대화형 금융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는 모두 표준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⁴⁾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 변수는 통제 및 조절 변수로 활용하였다. 기타 통제 변수로는 성별, 학교급과 학년을 통합한 변수, 지역, 부와 모 학력, 주관적 학업성취, 용돈 유무, 용돈 외 수입 유무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는 가구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및 교육적 배경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부모 학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용돈 외 수입은 아르바이트 및 부모님 일을 도와서 받거나,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직접 만든 것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 활동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통제 변수 가운데 성별, 학교급(학년), 지역, 부와 모 학력은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표 2>는 분석에 이용한 변수의 기초통계이다. 아울러 주요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와 분산팽창계수(VIF)를 검토하였다.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 간 상관계수는 0.111이었으며, 두 변수의 VIF는 각각 1.04와 1.06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변수의 최대 VIF는 2.06, 평균 VIF는 1.48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이용 변수 기초통계

변수		학생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상품	이용 유무	4049	0.07	0.26	0.00	1.00
	이용 개수	4049	0.09	0.37	0.00	3.00

4) 부모 금융교육의 세부 유형은 7개 설문 문항의 교육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기초생활형 금융교육은 일상적인 금전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3문항을 활용하였다. ‘내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용돈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 하신다’, ‘나에게 용돈 관리방법과 아껴 써야하는 이유나 방법을 알려 주신다’, ‘나에게 저축방법을 설명하거나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투자 노출형 금융교육은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과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2문항을 활용하였다. ‘나에게 주식투자에 대해 설명하거나 증권사에 데려가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다’, ‘나와 함께 주식계좌를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보 대화형 금융교육은 정보전달과 부모와 자녀 간 금융 관련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2문항을 활용하였다. ‘금융기관이나 지역 센터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나에게 경제 뉴스나 금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변수		학생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피해	경험 유무	4049	0.13	0.34	0.00	1.00
	경험 개수	4049	0.18	0.58	0.00	5.00
금융지식 과신		4049	-0.08	1.21	-3.86	5.00
주관적 금융지식		4049	0.05	0.99	-2.55	2.42
객관적 금융지식		4049	0.13	0.92	-3.24	1.31
학교 금융교육	경험 유무	4049	0.38	0.49	0.00	1.00
	정규수업 경험 유무	4049	0.29	0.45	0.00	1.00
	수업 외 경험 유무	4049	0.30	0.46	0.00	1.00
부모 금융교육	부모 금융교육	4049	0.08	0.99	-3.40	3.18
	기초 생활형	4049	0.07	1.00	-2.32	1.98
	투자 노출형	4047	0.05	1.02	-0.87	2.68
	정보 대화형	4044	0.07	0.99	-1.15	3.05
성별		4049	0.51	0.50	0.00	1.00
학교급(학년)		4049	3.63	1.69	1.00	6.00
지역		4049	1.68	0.65	1.00	3.00
부 학력		4049	1.91	0.59	1.00	3.00
모 학력		4049	1.86	0.55	1.00	3.00
주관적 학업성취		4049	0.11	0.99	-2.03	1.90
용돈 수입		4049	0.84	0.37	0.00	1.00
용돈 외 수입		4049	0.45	0.50	0.00	1.00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이 직접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은 종속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라 로짓 모형과 포아송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⁵⁾

먼저, 금융지식 과신이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의 이용 및 금융피해 경험 유

5)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상품 이용의 관계는 금융상품 이용이 금융지식 과신을 높였을 가능성과 금융피해 경험이 이후 자기평가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등, 역 인과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과 효과가 아닌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무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1)과 같다. 이용 및 경험 유무가 0과 1의 값을 갖는 이항 변수이므로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Pr(Y_i = 1) = \Lambda(\alpha + \beta_1 X_i + \gamma Z_i) \quad (1)$$

여기서 Y_i 는 청소년 i 의 금융상품 이용 유무 또는 금융피해 경험 유무를 나타내며, $\Lambda(\cdot)$ 는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이다. X_i 는 금융지식 과신, Z_i 는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 성별, 학교급(학년), 지역, 부와 모 학력, 주관적 학업성적, 용돈 유무, 용돈 외 수입 유무 등을 포함한 통제 변수이다. 또한 통제 변수로 객관적 금융지식을 포함한 모형과 포함하지 않는 모형을 구분하여 각각 추정하였다.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개수와 금융피해 경험 개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은 0 이상의 정수 값을 갖는 개수형 변수이므로 식 (2)와 같은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Y_i 는 청소년 i 의 금융상품 이용 개수 또는 금융피해 경험 개수를 의미하며, X_i 는 금융지식 과신, Z_i 는 식(1)의 통제변수와 같다.

$$E(Y_i | X_i, Z_i) = \exp(\alpha + \beta_1 X_i + \gamma Z_i) \quad (2)$$

다음으로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이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상품 이용 및 금융피해 경험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식 (3)과 같은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조절 효과를 추정하였다.

$$Y_i = \alpha + \beta_1 X_i + \beta_2 E_i + \beta_3 (X_i \times E_i) + \gamma Z_i + \epsilon_i \quad (3)$$

여기서 X_i 는 금융지식 과신, E_i 는 학교 금융교육 또는 부모 금융교육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Y_i 가 이용 및 경험 유무인 경우는 로짓모형, 이용 및 경험 개수인 경우는 포아송 회귀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금융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을 세분화한 조절 효과 모형도 각각 추정하였으며, 각각의 분석에서 E_i 는 학교 정규수업 금융교육, 학교 수업 외 금융교육, 기초생활형 부모 금융교육, 투자 노출형 부모 금융교육, 정보 대화형 부모 금융교육을 의미한다. 식 (3)에서 β_1 는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상품 이용 및 금융피해 경험의 관계를 나타내며,

β_3 는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이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상품 이용 및 금융피해 경험의 관계를 강화하는지 또는 완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모형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IV. 분석 결과

<표 3>은 금융지식 과신과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금융지식 과신은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여부와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개수와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금융 지식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 (2)와 (4)에서도 유의한 양(+)의 값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실제 금융지식에 비해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투자성 금융상품에 스스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직접 가입한 상품의 수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객관적 금융지식 역시 직접 가입 여부와 직접 가입 상품 수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투자성 금융시장 참여는 실제 금융지식 수준과도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 지식 과신 역시 별도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가입은 금융지식이 높은 학생의 행동일 뿐 아니라, 자신의 금융지식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학생에게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금융교육은 객관적 금융지식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여부와 개수에서 모두 약한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객관적 금융지식을 통제 한 모형 (2)와 (4)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금융교육은 모든 모형에서 강한 양(+)의 관계를 보여, 가정 내 금융 사회화가 청소년의 직접적인 투자성 금융시장 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통제 변수 중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의 이용 가능성이 높고 상품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학년을 통합한 변수를 보면, 투자성 금융상품의 직접 가입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중2, 고1, 고2, 고3이 기준 더미인 중1보다 높았고, 특히 고1과 고2의 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금융상품 이용 개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도 고1과 고2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고3에서도 양(+)의 관계가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투자 행위가 중학교 단계보다는 고등학교 단계, 특히 고1과 고2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읍면 도서 지역 거주자는 직접 가입 여부와 직접 가입 상품 수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 대도시 외 지역 청소년의 투자성 금융시장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부모 학력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용돈 자체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용돈 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여부와 개수 모두에서 매우 강한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표 3> 금융지식 과신과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구분		(1)	(2)	(3)	(4)
종속변수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개수	금융상품 이용 개수
금융지식 과신		0.234 ***	0.422 ***	0.251 ***	0.386 ***
학교 금융교육		0.244 *	0.208	0.244 *	0.214
부모 금융교육		0.595 ***	0.548 ***	0.422 ***	0.384 ***
객관적 금융 지식			0.442 ***		0.305 ***
성별(기준:여)	남	0.631 ***	0.492 ***	0.541 ***	0.437 ***
학교급(학년) (기준:중 1)	중 2	0.483 *	0.482 *	0.485 *	0.478 *
	중 3	0.258	0.233	0.150	0.134
	고 1	0.866 ***	0.763 ***	0.795 ***	0.714 ***
	고 2	0.902 ***	0.793 ***	0.776 ***	0.702 ***
	고 3	0.493 *	0.375	0.457 *	0.372
지역 (기준:특/광역시)	중소도시	0.073	0.061	-0.034	-0.041
	읍면도서	-0.502 *	-0.511 *	-0.651 ***	-0.660 ***
부 학력 (기준:고졸)	대졸	-0.023	-0.014	0.012	0.017
	대학원졸	0.393	0.402	0.304	0.314
모 학력 (기준:고졸)	대졸	0.276	0.239	0.087	0.061
	대학원졸	0.319	0.338	0.307	0.312
주관적 학업성적		0.055	-0.034	0.047	-0.016
용돈	유	0.227	0.185	-0.023	-0.058
용돈 외 수입	유	0.873 ***	0.818 ***	0.731 ***	0.681 ***
학생 수		4049	4049	4049	4049
Pseudo R ²		0.132	0.142	0.116	0.122

주: *** p<0.01, ** p<0.05, * p<0.1.

<표 4>는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 피해 경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금융지식 과신은 금융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유형 수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지식 과신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금융피해 경험 가능성이 높고, 경험한 피해 유형 개수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객관적 금융지식은 금융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유형 수 분석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금융피해 경험이 금융지식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 지식수준에 비해 자신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인식 왜곡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금융피해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는 객관적 금융지식보다 금융지식 과신이 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도 금융피해 경험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금융피해 경험 가능성과 피해 유형 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 주도적이면서 위험 지향적인 금융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금융피해 경험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급과 학년을 통합한 범주 변수는 금융피해 경험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피해 경험이 특정 학년 또는 학교급에서 뚜렷하게 달라진다고보다는 금융지식 과신, 용돈 외 수입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며,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를 높게 인식할수록 금융피해 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지식 과신과 주관적 학업성적은 자기평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금융피해와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용돈 외 수입이 있는 경우 금융피해 경험 가능성과 피해 경험 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용돈 외 추가 수입이 청소년의 금융시장 참여를 높이는 경제적 기반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위험 노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기 경제활동 경험이나 독립적 자금 운용 경험이 금융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적절한 위험관리 역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 학력은 부와 모의 학력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관계가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 학력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에

6) 금융피해 모형의 Pseudo R²가 약 0.02~0.0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금융피해가 금융지식 과신뿐 아니라 개인의 위험 성향, 또래와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지식 과신이 금융피해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제한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표 4>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경험

		(1)	(2)	(3)	(4)
종속변수		금융 피해 경험 유무	금융 피해 경험 유무	금융 피해 경험 개수	금융 피해 경험 개수
금융지식 과신		0.126 ***	0.158 ***	0.193 ***	0.176 ***
학교 금융교육		-0.004	-0.011	-0.055	-0.052
부모 금융교육		0.073	0.066	0.011	0.014
객관적 금융 지식			0.069		-0.035
성별(기준:여)	남	0.33 ***	0.308 ***	0.461 ***	0.472 ***
학교급(학년) (기준:중 1)	중 2	-0.053	-0.053	0.07	0.071
	중 3	0.045	0.043	-0.034	-0.033
	고 1	-0.031	-0.046	-0.027	-0.019
	고 2	0.088	0.07	0.003	0.012
	고 3	0.006	-0.011	0.094	0.102
지역 (기준:특/광역시)	중소도시	-0.02	-0.021	-0.045	-0.044
	읍면도서	-0.125	-0.126	-0.103	-0.102
부 학력 (기준:고졸)	대졸	-0.253 *	-0.252 *	-0.261 **	-0.263 **
	대학원졸	-0.536 ***	-0.535 ***	-0.407 **	-0.408 **
모 학력 (기준:고졸)	대졸	0.105	0.099	0.15	0.154
	대학원졸	0.615 ***	0.617 ***	0.727 ***	0.726 ***
주관적 학업성적		-0.096 *	-0.11 **	-0.111 **	-0.104 *
용돈	유	-0.013	-0.02	-0.131	-0.127
용돈 외 수입	유	0.421 ***	0.412 ***	0.522 ***	0.528 ***
학생 수		4049	4049	4049	4049
Pseudo R ²		0.021	0.021	0.039	0.039

주: *** p<0.01, ** p<0.05, * p<0.1.

<표 5>는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이 금융지식 과신과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학교 금융교육과 금융지식 과신의 상호작용 항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교 금융교육을 받은 청소년일수록 금융지식 과신이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금융상품 이용 개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3)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금융교육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모형 (2)에서 금융지식 과신과 부모 금융교육의 상호작용 항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 금융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금융지식 과신이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여부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화 될 가능성이 다소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융상품 이용 개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4)에서는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교육 조절 효과

	(1)	(2)	(3)	(4)
종속변수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개수	금융상품 이용 개수
금융지식 과신	0.156 **	0.294 ***	0.181 ***	0.303 ***
학교 금융교육	0.197	0.237 *	0.182	0.24 *
금융지식 과신 × 학교 금융교육	0.180 *		0.147	
부모 금융교육	0.598 ***	0.63 ***	0.423 ***	0.461 ***
금융지식 과신 × 부모 금융교육		-0.086 *		-0.068
학생 수	4049	4049	4049	4049
Pseudo R ²	0.133	0.134	0.117	0.118

주 1) *** p<0.01, ** p<0.05, * p<0.1.

2) 통제 변수를 모두 포함한 분석이며, 주요 결과만 제시함.

<표 6>은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을 세부 내용과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조절 효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학교 금융교육에서는 교육 방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정규 교과목에서의 학교 금융교육은 금융상품 이용 여부에서 금융지식 과신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지 않아, 금융지식 과신 효과를 별도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2)의 외부강사 강의 및 동영상 강의 시청 등의 학교 수업 외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과신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금융지식 과신이 직접가입 투자행동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강사 강의, 동영상 시청 등 비정규적 방식의 교육이 금융시장에 대한 흥미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지식 과신의 행동 효과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금융교육은 세부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이용 여부와는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나, 금융지식 과신의 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지는 않았다. 투자노출형 및 정보대화형 부모 금융교육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기초생활형 부모 금융교육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지식 과신과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 금융교육의 세부 요소들은 금융지식 과신의 효과를 바꾸는 조절 변수라기보다 청소년의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을 높이는 직접적인 사회화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금융상품 이용과 세부 내용별 금융교육 조절 효과

	(1)	(2)	(3)	(4)	(5)
종속변수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상품 이용 유무
금융지식 과신	0.181 ***	0.162 ***	0.296 ***	0.276 ***	0.275 ***
학교 금융교육			0.314 **	0.265 **	0.269 **
부모 금융교육	0.598 ***	0.597 ***			
학교 정규수업 금융교육	0.202				
금융지식 과신 × 학교 정규수업 금융교육	0.152				
학교 수업 외 금융교육		0.231 *			
금융지식 과신 × 학교 수업 외 금융교육		0.193 *			
부모 기초생활형 금융교육			0.132 *		
금융지식 과신 × 부모 기초생활형 금융교육			-0.028		
부모 투자노출형 금융교육				0.854 ***	
금융지식 과신 × 부모 투자노출형 금융교육				-0.081	
부모 정보대화형 금융교육					0.387 ***
금융지식 과신 × 부모 정보대화형 금융교육					-0.034
학생 수	4049	4049	4049	4047	4044
Pseudo R ²	0.133	0.134	0.091	0.189	0.105

주 1) *** p<0.01, ** p<0.05, * p<0.1.

2) 통제 변수를 모두 포함한 분석이며, 주요 결과만 제시함.

3) 모형(4)와 (5)는 부모 투자노출형과 정보대화형 금융교육 변수의 결측치로 학생 수가 소폭 감소함.

<표 7>은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이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경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형 (1)~(4)의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 모두 금융지식 과신과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 대한 학교 금융교육 및 부모 금융교육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 7> 금융 피해 경험과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 조절 효과

	(1)	(2)	(3)	(4)
종속변수	금융 피해 경험 여부	금융 피해 경험 여부	금융 피해 경험 개수	금융 피해 경험 개수
금융지식 과신	0.117 **	0.127 ***	0.162 ***	0.197 ***
학교 금융교육	-0.006	-0.004	-0.078	-0.058
금융지식 과신 × 학교 금융교육	0.025		0.083	
부모 금융교육	0.073	0.074	0.012	0.023
금융지식 과신 × 부모 금융교육		-0.004		-0.027
학생 수	4049	4049	4049	4049
Pseudo R ²	0.021	0.021	0.04	0.039

주 1) *** p<0.01, ** p<0.05, * p<0.1.

2) 통제 변수를 모두 포함한 분석이며, 주요 결과만 제시함.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표 8>의 금융 피해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금융교육 조절 효과 분석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의 세부 방식 모두 유의한 조절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정규 교과 수업과 동영상 시청 등의 비정규 강의 모두 금융지식 과신이 금융 피해 경험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학교 기반 금융교육이 현재 형태로는 금융지식 과신으로 인한 피해 취약성을 줄이는 데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모 금융교육은 세부 방식에 따라 상이한 조절 효과를 보였다. 모형 (3)에서 부모의 기초생활형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과신과의 상호작용 항이 금융 피해 여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기초생활형 금융교육이 금융지식 과

신과 금융피해 간의 양(+)의 관계를 완화할 가능성을 보였다. 즉, 용돈 관리, 절약, 저축과 같은 생활밀착형 금융교육이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금융 피해 여부와 세부 내용별 금융교육 조절 효과

	(1)	(2)	(3)	(4)	(5)
종속변수	금융 피해 여부	금융 피해 여부	금융 피해 여부	금융 피해 여부	금융 피해 여부
금융지식 과신	0.11 **	0.118 **	0.136 ***	0.107 ***	0.119 ***
학교 금융교육			0.003	-0.003	-0.011
부모 금융교육	0.072	0.072			
학교 정규수업 금융교육	0.021				
금융지식 과신 × 학교 정규수업 금융교육	0.057				
학교 수업 외 금융교육		0.019			
금융지식 과신 × 학교 수업 외 금융교육		0.027			
부모 기초생활형 금융교육			0.003		
금융지식 과신 × 부모 기초생활형 금융교육			-0.071 *		
부모 투자노출형 금융교육				0.087 *	
금융지식 과신 × 부모 투자노출형 금융교육				0.064 *	
부모 정보대화형 금융교육					0.086 *
금융지식 과신 × 부모 정보대화형 금융교육					0.021
학생 수	4049	4049	4049	4047	4044
Pseudo R ²	0.021	0.021	0.021	0.022	0.021

주 1) *** p<0.01, ** p<0.05, * p<0.1.

2) 통제 변수를 모두 포함한 분석이며, 주요 결과만 제시함.

3) 모형(4)와 (5)는 부모 투자노출형과 정보대화형 금융교육 변수의 결측치로 학생 수가 소폭 감소함.

이에 비해 모형 (4)의 부모의 투자노출형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과신과의 상호작용 항이 한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양(+)의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주식 투자 설명, 주식계좌 개설, 투자 대화 등을 통해 자녀를 투자성 금융시장에 일찍 노출시키는 경우, 금융지식 과신이 있는 청소년에게서는 금융 피해 취약성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정보대화형 금융교육은 금융피해 여부 및 피해 개수 수준 자체와는 양(+)의 관계가 있었으나, 금융지식 과신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보대화형 금융교육은 과신의 효과를 조절하기보다는 금융 관련 노출 수준이나 관심 수준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지식 과신은 청소년의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및 금융피해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교 금융교육은 수업 외 금융교육에서 금융지식 과신과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간의 양(+)의 관계가 강화되는 한계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나, 정규수업과 수업 외 금융교육 모두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에 대한 유의한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 금융교육은 교육 내용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였다. 투자 노출형 교육은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계적인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기초생활형 교육에서는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를 완화하는 한계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청소년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전달이나 금융시장 참여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금융지식 과신을 통제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예방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이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그리고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지식 과신은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여부 및 개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고, 금융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경험 수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객관적 금융지식을 통제한 이후에도 금융지식 과신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금융행위와 금융피해가 단순한 지식수준과는 별개로 실제

지식에 비해 자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금융지식 과신은 청소년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참여와 관련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피해 위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금융교육과 부모 금융교육의 효과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교 금융교육은 정규수업 및 수업 외 금융교육 모두에서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규수업 외 금융교육에서는 금융지식 과신과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간의 양(+)의 관계가 강화되는 한계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규수업 외 금융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에서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시장 참여 간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부모 금융교육은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기초생활형 금융교육에서는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가 완화되는 한계적인 경향이 나타난 반면, 투자노출형 금융교육은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 자체와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계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 금융교육의 효과가 단순히 교육이나 조언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떤 내용의 금융사회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금융행동과 금융피해를 이해할 때 객관적 금융지식 자체만이 아니라 금융지식에 대한 자기평가의 왜곡, 즉 금융지식 과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이해력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나 (Lusardi and Mitchell, 2014; 2023), 실제 금융지식뿐 아니라 인지된 금융지식 역시 금융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Allgood and Walstad, 2016). 동시에 금융과신 연구는 자신의 금융지식이나 판단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경우 위험자산 투자, 과도한 거래, 금융조언 회피, 금융사기 취약성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Barber and Odean, 2001; Porto and Xiao, 2016; Xiao et al., 2022).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은 직접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 모두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금융시장 참여와 피해 취약성이 단순한 지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식에 비해 자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 금융교육과 정책은 단순한 지식 향상만이 아니라 실제 지식과 자기평가 간의 불일치를 줄이는 방향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금융교육은 단순한 금융지식 전달이나 금융상품 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인식과 금융피해 예방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는 학교 금융교육이 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 온라인 금융 정보의 신뢰성, 불법 금융피해 위험 등 실제 위험관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은 주식, 가상화폐, 투자상품의 기본 개념 소개를 넘어, 허위 정보 판별, 고수익 광고 경계, 또래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기 및 불법 금융피해 사례 분석 등, 위험관리 중심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 금융교육 또는 가정 내 금융 대화 역시 단순한 투자 경험 공유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용돈 관리, 절약, 저축과 같은 기초생활형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의 관계를 완화하는 보호적 역할을 보였다. 반면 주식계좌 개설 경험, 투자 이야기 공유 등 투자노출형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직접 가입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지식 과신이 있는 경우 피해 취약성을 강화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부모 금융교육이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 연계 금융교육이나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에게 투자나 금융상품에 대해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손실 가능성, 불확실성, 정보의 한계, 위험한 투자권유에 대한 경계 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과 적극적 금융행위 및 금융피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교육의 역할을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인과 효과를 엄밀히 식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직접 가입 경험이 오히려 금융지식 과신을 높였을 가능성, 금융피해 경험이 이후 자기평가를 변화시켰을 가능성 등 역 인과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인과 효과로 해석하기보다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소년은 독립적인 소득과 자산이 제한되어 있어 금융상품 이용이 개인의 금융지식이나 과신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정환경, 용돈 규모 및 금융상품 접근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력, 용돈 및 기타 소득 등 관련 요인을 통제하였으나 부모의 소득과 자산, 청소년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직접 투자성 금융상품을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낮고,

복수의 상품을 이용한 경우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러한 자료의 불균형은 추정치의 정밀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결과는 청소년 전체의 일반적인 금융행동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한 표본이나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결과의 안정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자료 및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추적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시장 참여 및 금융피해 경험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규명하고, 청소년기의 금융지식 과신이 성인기의 독립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금융행동에 어떠한 장기적 관련을 갖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융지식 과신이 직접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 모두와 일관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행동 및 금융피해 간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의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24),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보도 자료(11. 11.).
- 김민정 · 조혜진 · 김은미 · 곽민주(2019), 암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 암호자산 투자자 특성 및 투자결정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30(3), 153-176.
- 김수민(2025), 가정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 유형이 금융피해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4(2), 73-102.
- 김아름 · 양혜경(2019), 자기과신이 금융상품 보유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12(2), 79-112.
- _____ (2020), 자기과신과 금융사기 피해와의 관계 : 구조적 선택이론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31(3), 91-115.
- 김지경 · 서정아 · 송현주(2023),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56.
- 백은영 · 주소현(2011), 우리나라 투자자의 자기과신성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4(1), 29-53.
- 아시아경제(2025), 인터넷사기 피해자 5명 중 1명은 10대...상반기만 18만건, 신문 기사(7.14.).
- 이윤호(2024), 금융이해력 과신에서 과대평가와 우월평가의 관계 및 증권 투자 경험, 소비자학연구, 35(2), 99-120.
- 이주호(2025),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32(3), 117-134.
- 한진수(2023), 금융 지식의 과신이 금융 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제교육연구, 30(1), 53-75.
- Allgood, S. and W. B. Walstad (2016), The Effects of Perceived and Actual Financial Literacy on Financial Behaviors, *Economic Inquiry*, 54(1), 675-697.
- Aristei, D. and M. Gallo (2021), Financial Knowledge, Confidence, and Sustainable Financial Behavior, *Sustainability*, 13(19), 10926.
- Barber, B. M. and T. Odean (2001), Boys Will Be Boys : Gender, Overconfidence, and Common Stock Invest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 261-292.
- Berner, E. S. and M. L. Graber (2008), Overconfidence as a Cause of Diagnostic Error

- in Medicin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121(5 Suppl), S2-S23.
- Broihanne, M. H., M. Merli, and P. Roger (2014), Overconfidence, Risk Perception and the Risk-Taking Behavior of Finance Professionals, *Finance Research Letters*, 11(2), 64-73.
- Chhatwani, M. and A. K. Parija (2023), Who Invests in Cryptocurrency? The Role of Overconfidence among American Investor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107, 102107.
- Finke, M. S., J. S. Howe, and S. J. Huston (2017), Old Age and the Decline in Financial Literacy, *Management Science*, 63(1), 213-230.
- Glaser, M. and M. Weber (2007), Overconfidence and Trading Volume, *Geneva Risk and Insurance Review*, 32(1), 1-36.
- Kim, K. T., S. D. Hanna, and S. T. Lee (2023), Investment Literacy, Overconfidence and Cryptocurrency Investment, *Financial Services Review*, 31(2/3), 121-132.
- Kraft, P. S., C. Günther, N. H. Kammerlander, and J. Lampe (2022), Overconfidence and Entrepreneurship : A Meta-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Overconfidence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7(4), 106207.
- Lusardi, A. and O. S. Mitchell (2014), The Economic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1), 5-44.
- Mandiri, A. E. and S. Sriwidharmanely (2025), Overconfidence and Students' Investment Decision : The Moderating Role of Financial Literacy, *Journal of Auditing, Finance, and Forensic Accounting*, 13(1), 23-39.
- Merkle, C. (2017), Financial Overconfidence over Time : Foresight, Hindsight, and Insight of Investor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84, 68-87.
- Moore, D. A. and P. J. Healy (2008), The Trouble with Overconfidence, *Psychological Review*, 115(2), 502-517.
- Pikulina, E., L. Renneboog, and P. N. Tobler (2017), Overconfidence and Investment :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43, 175-192.
- Porto, N. and J. J. Xiao (2016), Financial Literacy Overconfidence and Financial Advice Seeking, *Journal of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s*, 70(4), 78-88.
- Samanez-Larkin, G., G. Mottola, D. Heflin, L. Yu, and P. Boyle (2020), Overconfidence in Financial Knowledge Associated with Financial Risk Tolerance in Older

- Adults, *Center for Cognitive Neuroscience, Duke University, Durham*, DOI, 10.
- Sheldrake, R., T. Mujtaba, and M. J. Reiss (2022), Implications of Under-Confidence and Over-Confidence in Mathematics at Secondary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6, 102085.
- Smith, B. C. (2025), Does Crypto Make Young Investors Overconfident? A Qualitative Analysis of Crypto and Non-Crypto Owners, *Journal of Accounting and Finance*, 25(4), 74-85.
- Wohleber, R. W. and G. Matthews (2016), Multiple Facets of Overconfidence : Implications for Driving Safet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43, 265-278.
- Xiao, X., X. Li, and Y. Zhou (2022), Financial Literacy Overconfidence and Investment Fraud Victimization, *Economics Letters*, 212, 110308.
- Zhu, A. Y. F. (2021), Financial Literacy Types and Financi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 Role of Financial Education,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2(2), 217-23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inancial Knowledge Overconfidence, Financial Product Use, and Financial Harm

Woojin Shin*

This study examines how financial knowledge overconfidence among adolescents i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nvestment-oriented financial products and experiences of financial harm, and whether school- and parent-based financial education moderate these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 that financial knowledge overconfidence may be associated with both greater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rkets and greater vulnerability to financial harm among adolescents. In addition,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and parent-based financial education were found to some exten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knowledge overconfidence and financial product use and financial harm.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greater emphasis on preventive financial education that can mitigate financial knowledge overconfidence and strengthen risk awareness and the capacity to prevent financial harm among adolescents.

Key words: Overconfidence, Adolescents,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harm, Financial education

원고접수: 2026년 06월 11일 심사일: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8월 24일
게재확정: 2026년 08월 24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ent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hinwj@pusan.ac.kr).